



## 강 남 구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舊 한전부지 개발관련 공공기여금 영동대로 원샷개발 사용 협조요청**

1. 국가 교통망 구축에 헌신을 다하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나라 무역사령탑인 “무역회관” 과 “2010년 G- 20정상회담” 및 “2012년 세계 핵 안보 정상회담” 등으로 세계인에 널리 알려진 COEX가 있는 강남의 최고 중심지 영동대로 한전부지에(24,000여평) 현대차그룹이 571m(115층) 초고층 건물과 62층 호텔을 지으려 합니다.
3. 舊 한전부지에 초대형 공사를 위해서는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혜택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공기여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개발 밀도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우리구 관내, 기반시설 확충 및 취약한 기반시설 정비에 최우선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4. 특히, 舊 한전부지 주변인 영동대로에는 현재 지하철 2개 노선(2호선, 9호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향후 GTX 3개 노선, KTX 및 위례~신사선, U-SmartWay 등 6개의 광역대중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예정입니다.
5.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모두 별개로 추진될 경우에는 ▲ 반복되는 공사경비의 중복적 부담 및 예산낭비 초래 ▲ 지하공간 환승체계 단절 ▲ 최소 20년 이상 공사가 지속되어 영동대로와 인근의 테헤란로, 아셈로 등 주변지역의 교통문제가 심각하며, 특히 영동대로 지하 환승시설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곳이므로 영동대로 원샷개발은 필연적 입니다.
6. 하지만, 영동대로 원샷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초기에 투입되는 막대한 자금입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개발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공공기여금을 활용하는 것 뿐이므로, 舊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은 본래의 근본취지에 맞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당연히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최우선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7. 그런데, 서울시는 舊 한전부지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소유의 잠실종합운동장 부지 일대에 사용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결정하였으며, 도시계획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이해당사자인 자치구의 참여를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8. 이에, 우리구는 서울시에 舊한전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사전협상 운영지침 재 개정을 통해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 계획 등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협상조정협의회에 이해당사자인 우리구가 참여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9. 그리하여, 소송 전 마지막 방법으로 호소문을 발표하게 되었으며, 귀 기관에서도 舊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교통대란 해결 및 공사기간, 공사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영동대로 원샷개발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호소문 1부. 끝.

## 강 남 구 청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철도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광역도시철도과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오승훈 시민의식선진화팀장 이진우 도시선진화담당관 이희현 부구청장 직무대배경섭 대리

구청장 07/29 신연희

협조자

시행 도시선진화담당관-7005 ( ) 접수 ( )

우 135-091 서울 강남구 삼성1동 16-1번지 강남구청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6976 /전송 02-3423-8817 / huni450@gangnam.go.kr / 대시민공개